

라트비아 리가의 창업주 크리스탑스의 전설에 나타난 보호자의 형상 연구

조 홍 윤

(이스탄불대학교 강의교수)

1. 서론

발트 3국의 중앙에 위치한 라트비아(Latvia)의 수도 리가(Riga)를 여행하다보면 도시를 가로지르는 다우가바(Daugava)강의 구도심 쪽 강변에 놓인 거인의 입상을 만나게 된다. 3미터 가량의 키에 넓게 벌어진 어깨, 중세 유럽 특유의 튜닉을 걸친 거대한 남성의 목상이다. 그러나 이 거인을 마주하는 느낌이 위압적이지 않은 것은 그 얼굴에 드리워진 온화한 미소에 더하여 드넓은 그 어깨 위에 앉아 있는 아기의 모습 때문이다. 어깨 위에서 네 활개를 펴고 천진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인해 거인의 강대한 형상이 곧 강력한 보호자로서의 이미지를 덧입게 된 연유일 것이다. 거인의 정체는 크리스탑스(Lielais Kristaps), 그 옛날 리가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창업주의 이름이다.

리가의 설립은 통설적으로 12세기 말을 그 시점(始點)으로 본다. 독일기사단

(Deutscher Orden)이 한자(Hansa) 상인들의 행렬을 따라 다우가바강 하구로 이동하면서, 브레멘의 대주교인 알베르트(Alberts)의 지휘 아래 무역 도시를 세웠던 것으로 본다(이상금 2011 69). 그러나 발트해 연안에는 기원 전 6000년 경부터 인간이 거주하였으며, 기원전 1000년 경부터 에스트인과 리브인, 쿠르인, 프루센인, 레트인, 리투아니아인 등 여러 소수민족들이 토착 세력을 이루었다고 한다(이상금 2014 242). 그러므로 리가의 창업주로 전해지는 크리스탑스의 정체에 대하여, 그가 현 리가 지역의 토착 세력에 속한 인물인지, 13세기의 점령 세력이었던 독일계의 인물인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 그에 따라 이야기의 형성 시점이 13세기 독일계의 점유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에 대해서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¹⁾ 이에 본고에서는 특정하기 어려운 전설의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기보다는 순수 구비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그 서사가 지닌 상징과 함의를 분석해보자 한다. 이는 그 역사적 연원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그 서사문학적 의미와 가치가 결코 평범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크리스탑스의 전설에 대하여 이와 같이 구비문학 작품론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진 전례는 국내외를 통틀어 찾기 어렵다. 전반적인 동유럽 지역 혹은 발트 지역의 문학 양상을 논하는 차원에서 짧은 언급이 이루어진 것이 국내 연구의 전부라 할 수 있으며(정병권 2003; 이상금 2014), 국제적 학술의 장을 통해서는 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라트비아 현지의 구비문학계에서는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는 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참고할만한 선례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구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전설의 서사적 의미를 구명해야 할 의의는 무엇인가.

라트비아는 독일기사단의 도래와 함께 기독교의 영향 아래 놓인 이후로도 민중적 차원에서는 전통의 민속 문화와 고유의 사고방식을 지켜나가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민희 2012 177). 그에 따라 구비문학에 있어서도

1) 물론 이야기 속에서 크리스탑스가 조우한 아이의 정체가 ‘예수’였다거나, 그를 ‘성 크리스토퍼(St. Christopher)’로 지칭하는 각편이 있다는 점에서 전설에 깃든 기독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독교와 봉건주의를 들고 발트 3국을 종횡하였던 독일계 통치 이후의 이야기라는 근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착민들에 의해 형성된 이야기가 외래 보편종교와 융합되는 양상은 구비문학 전승의 맥락에서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크리스탑스의 전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색채를 곧바로 그 기원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기독교적 영향이 나타나기는 하나 비교적 그 전통과 원형을 온전히 지켜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것처럼 민중 문화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침식이 깊지 않았던 것에 더하여 단일 민족으로써 형성된 단일 국가가 오랜 기간 확고히 지속되지 못한 상황 아래 민족과 국가의 형성을 의식적으로 이상화하기 위한 문학적 움직임 또한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들은 그들의 구비문학이 비교적 자연 상태로 보존되고 뚜렷한 원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야기인 크리스탑스의 전설 또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원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인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를 건설한 영웅, 곧 라트비아의 건국시조에 해당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임에도 여타의 건국영웅 서사시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의 이상화, 혹은 주인공의 신성을 통해 창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서사의 표면에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건국 서사시의 문법이라 할 수 있는 바(천혜숙 2002 86), 이 전설에서는 그와 같은 특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창업주에 대한 영웅 서사시라기보다는 민중 발생적인 인물 전설의 문법을 따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오히려 창업주의 자격에 대한 민중 인식의 원형(archetype)이 보다 적실하게 형상화된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형은 보편 민중의 인식에 관계된 만큼, 단순히 국가나 도시의 창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인간 집단의 창업 전반을 아우르는 이미지일 것이다. 이는 같은 발트 3국에 속하는 에스토니아(Estonia)나 리투아니아(Lithuania)의 건국 설화와 비교해도 두드러진 특성이다.²⁾ 바로 이 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치가 주목된다. 건국 설화의 하나로서는 매우 특수하게도 의식적인 장식의 요소가 비교적 배제된 이 전설을 통해, 평범한 민중이 진정으로 원했던 창업주의 자격은 무엇인지 그 원형적 인식의 민낯을 구명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것이다.

2) 에스토니아의 건국 설화에 해당하는 <칼레브의 아들(Kalevipoeg)>은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아에 비견되는 신화적 영웅서사시의 면모를 보여주며, 리투아니아에서 전하는 게디미나스(Gediminas) 대공의 전설은 고귀한 혈통의 영웅이 꿈을 통해 예언을 얻고 나라를 세우는 방식으로, 둘 모두 창업주의 신성함과 영웅성을 전면에 드러내는 영웅서사시의 문법을 답습한 것이다 (이상균 2014 247).

2. 크리스탑스 전설의 서사에 배치된 상징과 함의: 보호자의 형상

본격적으로 크리스탑스 전설의 서사와 상징 의미를 분석하기에 앞서, 아직 국내의 학술 장에 자세히 소개된 바 없는 크리스탑스 전설의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이야기 원자료의 존재이다. 꾸준하고 활발한 현장조사를 통해 구비문학 전반에 걸쳐 원자료를 축적하고 『한국구비문학대계』³⁾를 위시한 다수의 자료집을 출간해온 한국의 경우와 달리, 해외 구비문학 연구자들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원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녹취 전사된 그대로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공유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에 따라 크리스탑스 전설의 원자료가 수록된 자료집은 찾을 수 없고 결국은 윤문된 자료를 대상 텍스트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중 신뢰할 만한 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 출판된 사례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이에 라트비아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of the Republic of Latvia)의 지원을 받아 라트비아 작가 협회(The Latvian Writers' Union)에 의해 편찬되고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지원으로 영역 출판된 『리가의 책』, *The Book of Riga: A City in Short Fiction* 의 서문에 제시된 각편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그 서사를 간략하게 제시한다(Eva Eglāja Kristsons 2018 8).

- a. 옛날 리가가 세워지기 전 두아가바 강변의 오두막에는 크리스탑스라는 거인이 살았는데 그는 강 건너편으로 사람들을 업어서 옮겨주는 일을 생업으로 하여 살았다.
- b.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잠을 자던 크리스탑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깨어 밖에 나가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다.
- c. 아이는 크리스탑스에게 다가와 자신을 강 건너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 d.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크리스탑스는 주저 없이 아이를 자신의 어깨에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 e. 강을 조금씩 가로지름에 따라 아이는 점점 더 무거워 졌고, 반쯤 건넌을 때에는

3) 한국학중앙연구원(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집 1-82권·부록(유형 분류 및 색인) 1-3권, 1980-1992.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그러나 크리스탑스는 끝내 아이를 어깨에 얹은 채 건너편 강변에 올랐고 곧 완전히 탈진해서 잠이 들고 말았다.

f.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크리스탑스는 자신이 옮겨준 아이가 커다란 금상자로 변한 것을 발견했고 그 금으로 리가를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리가의 첫 번째 집은 크리스탑스의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지어졌다.

위를 간추리면, 현 리가 지역의 두아가바 강변 오두막에 살던 크리스탑스라는 거인이 아이를 건너편 강변에 옮겨준 보상으로 큰 부를 얻어 리가를 세웠다는 것이 이야기의 열개이다. 이때 아이를 옮기는 일은 도시의 창업주로서 그의 자격을 묻는 '시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신성한 시험이 이 서사의 핵심이 되어 '시험-보상'이라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단일진행과정(블라디미르 프롭 2009 145-146)의 서사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단선적 서사 구조를 지녔다는 점에서도 한 편의 건국 설화로서 이 이야기가 지닌 특별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의 건국 설화에서는 창업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동원된다. 신성하거나 고귀한 혈통에 대한 장황한 설명, 보통 사람과 다른 기이한 탄생, 매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 장성하여 이루어내는 여러 업적에 관한 것들, 영웅의 행보를 가로막는 위협과 그 극복에 대한 에피소드 등으로 복잡적이고 장황한 서사가 구성되게 된다. 것처럼 수많은 에피소드들 각각은 주인공이 지닌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크리스탑스 전설에서는 핵심적인 하나의 에피소드만이 이야기됨으로써 창업주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식적 에피소드들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것처럼 핵심적인 하나의 에피소드, '시험-보상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한다. 시험에 의한 보상이 크리스탑스가 리가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을 상기하면, 그와 같은 보상을 얻도록 한 시험의 내용이야말로 그가 지닌 창업주로서의 자격을 묻는 것이었음을 짐작할만하다. 이에 '아이를 옮긴다'는 시험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이 전설의 서사가 그려내고 있는 창업주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얼핏 '거인이 아이를 어깨에 얹고 강을 건넌다는 행위'가 창업주의 자격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형적인 건국 설화의 창업주들

을 비교하여 볼 때, 아이 한 명을 강 건너로 데려다주는 일은 너무나 작고 소박한 것이어서 창업주의 자격을 묻는 시험의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듯 보이는 것이다. 이에 그 전모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징의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에 배치된 존재와 사건은 일상적인 인간의 삶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서, 일상적인 인간의 인식 수단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실의 심오한 양상들을 밝혀주는 총체라 할 수 있다(미르치아 엘리아데 1998 15). 따라서 이야기 속의 비일상적인 존재와 사건이 현실의 어떠한 양상들을 투영하는가를 궁구함으로써 그 서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크리스탑스가 지닌 거인의 존재성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신화적으로 거인의 존재성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격을 나타내며, 세계와 지역의 창조를 담당할만한 신성한 힘을 상징한다. 한국의 거인 전승을 예로 들면, 붙어 있던 하늘과 땅을 분리해냈다고 전해지는 <창세가>의 ‘미륵’이나, 제주도의 오름과 곶을 만들었다는 ‘설문대할망’ 등의 사례에서 그와 같은 창조신적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권태효 2002 40; 조현설 2009 144-145). 이처럼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인이 지닌 거대함 자체가 세계의 변화를 만들어낸 만한 무한한 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크리스탑스가 지닌 거인으로서의 존재성은 그와 같은 무한한 힘의 상징에 걸맞은 것은 아닌 듯하다. 그는 큰 키와 힘을 지녔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강 건너편으로 옮겨주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아이를 어깨에 엮고 강을 건너는 시험의 장면에서는 아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는 등 무한한 힘의 상징으로서의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화와 전설이 지닌 격의 차이에서 오는 존재적 위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까. 실상 유럽지역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인의 위상은 신화적 숭배의 대상에서 세계를 위협하는 악(惡), 혹은 기독교의 이념을 수호하는 성인(聖人)의 두 가지 모습으로 격하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Eva Eglāja Kristsons 8-9). 그러나 시험의 과정을 경유하여 자격을 인정받았을 때 크리스탑스는 리가의 창건자가 되었다. 한 도시의 창건자가 되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신화적 거인의 존재성에 부합할 위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크리스탑스가 지닌 거인의 존재성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신

성이나 힘을 상징하기 보다는, 시험이라는 역경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달성 가능한 잠재적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거인으로서의 존재성이 크리스탑스가 지닌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볼 때, 같은 맥락으로 그가 생업으로 삼아 종사했던 일 또한 리가의 창건주로서 지닌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이해된다. 큰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들은, 보통 수운을 통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게 되고, 리가의 경우에도 두아가바강을 중심으로 한 물류 이동의 중심지로서 발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Eva Eglāja Kristšone 8-9). 인간의 통행을 가로막는 강이라는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오히려 물류 이동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 그와 같은 도시들의 발전 동력이었음을 감안하였을 때, 강 건너로 사람들을 옮겨줄 수 있었던 크리스탑스의 모습은 곧 그가 창건할 도시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두아가바 강변의 크리스탑스 목장이 어부와 상인, 운수업자들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사실도 그와 같은 추측의 근거를 제시한다(Wander Stories ED 2014 89). 즉 거인이었기에 사람들을 업어 강 건너로 옮겨줄 수 있었던 크리스탑스의 존재는 수운을 통해 발전하게 될 도시 리가의 창업주로서 그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창업주로서의 가능성은 동일하게 강을 건너 사람을 옮겨 주는 시험을 경유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신성한 시험으로서 직면한 ‘강 건너가는 그가 일상적으로 수행했던 생업으로서의 그것과 다른 조건과 맥락을 지닌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라는 조건은 그가 일상적으로 수행했던 강 건너기와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생업으로서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사람들을 옮겨주었던 것과 달리 그저 울고 있는 아이를 측은하게 여겨 강 건너기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것이 일상적인 교환의 원리를 떠난 증여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이해할 수 있다. 교환의 원리로 수행된 강 건너기를 통해서 크리스탑스와 옮겨진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으나, 증여의 차원으로 수행된 강 건너기를 통해 옮겨진 아이는 크리스탑스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⁴⁾ 다시 말해, 생업의 수단

4) 대등한 가치를 지닌 재화를 맞바꾸는 ‘교환’을 통해서 교환 행위 이상의 관계가 파생될 수 없으나, ‘증여’를 통해서 당사자 사이에서 이동되는 가치들이 만들어내는 차이만큼 인간적 관계의 증진이 이루어진다(나카자와 신이치 2003 39-42).

으로서 관계없는 대상을 옮겨줄 뿐이었던 일상적 강 건너기와 달리 시험으로서의 강 건너기는 인격적인 관계 대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헌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 건너기의 시험에 전제된 크리스탑스와 아이의 인격적 관계란 무엇인가. 폭풍우 속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더 할 나위 없는 약자의 모습을 형상화한다면, 그러한 아이를 어깨에 엮고 거친 강물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거인의 모습은 완전한 보호자의 존재를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험의 과정에 전제된 둘의 관계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이며, 시험을 통해 크리스탑스가 증명해낸 자격이란 것도 강건한 보호자로서의 그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어깨에 아이를 엮고 강을 건너며 크리스탑스가 겪어내야 했던 역경은 곧 이상적인 보호자로서 극복하고 감내해야 할 시련을 상징한다.

여기서 시험의 장소로 등장하는 강, 즉 물의 상징이 의미심장하다. 융(C. G. Jung)에 따르면 꿈과 환상, 문학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물의 이미지는 인간 무의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원형의 상징으로서 모성적인 의미(狀)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것은 모체의 자궁이자 발아와 탄생의 공간이며, 죽음이자 재생이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재탄생의 매개, 잠재된 것들의 발현을 위한 질료이다(칼 구스타프 융 2006 87-90). 크리스탑스는 그와 같은 물을 가로지르는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창업주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품은 불완전체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개화한 완전체로의 재탄생을 경험하게 된다. 물속에서의 시련이 크리스탑스로 하여금 그의 보호자로서의 가능성, 창업주로서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증명케 하였으며, 그 시련의 내용이야말로 곧 그가 지닌 보호자의 자격을 묻는 것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강을 가로질러 나아갈 때마다, 크리스탑스는 어깨위에 태운 아이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강의 중간에 이르러서는 그 무게를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여기서 ‘중간 지점이 만들어내는 의미가 새롭다. 보통 어떠한 고난의 단계를 상상하였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극복을 눈앞에 둔 최종지점에서 극대화되는 고통을 떠올리기 쉽다. 그리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힘겨운 한 걸음을 더 내딛을 때 마침내 궁극적인 극복을 이루어내리라 생각한다. 술한 영웅 서사시를 통해 반복 재생산된 고난 서사의 구조이며, 그에

따라 실제로 경험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학습된 고난 극복의 과정이다.⁵⁾ 그러나 크리스탑스가 직면한 시련은 그와 같은 일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한참이나 갈 길이 남은 강의 중간 지점에서 더 이상 그 시련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시련을 통해 증명해야 할 보호자로서의 자격 때문이다. 중간 지점에서 극대화 되는 고난, 그것이 '보호자로서 감내해야 할 고난의 양상에 부합되는 까닭이다.

작든 크든 하나의 사회 집단을 형성하는 창업주는 창업과 동시에 그 집단을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된다. 물론 그것은 그 창업의 목적이 거저된 것이 아니며, 집단의 영속과 번영을 위한 행위로서 성립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때의 창업은 증여의 차원에서 아이를 어깨위에 올린 크리스탑스의 행위와 마찬가지로이다. 집단의 구성원과 단단한 관계를 구축하고 집단을 위협하는 세계에 맞서 보호자로서의 헌신을 자청하는 것이 창업주, 집단의 창업을 주도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집단이 탄생한다.

창업의 시점에서 창업주는 자기 자신과 구성원, 즉 집단을 지킬 수 있는 포부와 힘을 자신한다. 거인으로서의 크리스탑스가 망설임 없이 조그마한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물을 거스르기 시작하듯 말이다. 그렇게 집단의 역사가 만들어진다. '강물로 표상되는 시간의 흐름, 세계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⁶⁾ 집단은 때로는 세계의 흐름에 스스로의 몸을 맡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계의 흐름을 거슬러가며 그들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나간다. 그렇게 집단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창업주, 집단의 보호자는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진 짐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요동치는 물살처럼, 집단을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요동치며 집단의 존속을 위협하고, 집단 내부의 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고 얽혀 창업주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5) 그와 같은 클리셰는 인류가 향유해온 대부분의 이야기에 심층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 바, 캠벨은(Joseph Campbell)은 이와 같은 구조를 원질신화(Monomyth, 혹은 단원 신화)로 명명하였고, 전형적인 영웅 이야기에 제시된 영웅의 여정(Hero's journey)이 그와 같은 구조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서사 형성의 거푸집으로 작용하여 술한 서사작품을 통해 재생산되어 왔다(조셉 캠벨 2010 13-55).

6) 고금을 통틀어 세계의 술한 문학 작품에서, 물의 흐름은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표상해 왔다. 이 전설에서 크리스탑스와 아이가 놓이게 되는 강물의 흐름 또한, 크리스탑스와 아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창업 당시에 상정하였던 목표를 한참이나 남겨둔 중간 지점에서, 창업주는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짐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낀다.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한계를 뛰어 넘는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자신에게 기댄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 집단의 창업주가 함양해야 할 보호자의 모습인 것이다.

크리스탑스 또한 강의 중간에 못 미쳐 한 걸음도 떼지 못할 만큼 지치고 고통스러웠지만, 걸음걸음마다 한계를 넘어서며 결국은 건너편 강기슭에 아이를 내려 놓을 수 있었고, 아이의 안전을 확보했을 때에야 비로소 쓰러져 잠이 든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아이가 변한 금상자였다. 건너편 강변에 안착한 아이의 존재는 곧 크리스탑스가 증명한 보호자의 자격을 상징한다. 그러한 아이가 금으로 변화했다는 것, 그 자리에 놓인 금은 곧 크리스탑스가 보여준 보호자의 자격을 세계가 인정하였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에 그 금을 통하여 크리스탑스는 리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3. 창업주의 자격에 대한 민중의 원형적 인식, 그 현실적 의미

앞서 언급했듯, 크리스탑스 전설은 리가의 창건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는 곧 이 전설이 리가를 수도로 삼은 라트비아의 건국 설화에 해당함을 의미한다(이상균 2014 247). 그러나 이 전설에는 일반적인 건국 영웅 서사시에 나타나는, 창건의 위업을 긍정받기 위한 프로파간다(propaganda)적 장식의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건국설화에 비하여 하나의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매우 단형의 서사가 구

성되어 있다.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단형의 구조로써 신성화 되거나 이상화 되지 않은 주인공과 행위를 통해 이야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창업주의 자격에 대한 민중의 원형적 인식을 온전히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건국 설화에서는 사실 창업주의 자격에 대한 시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국을 예로 들어, <단군신화>에서는 단군이 천제(天帝) 환인의 서자인 환웅의 아들이며, 지상의 세력을 대표하는 웅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선의 창업주가 될 수 있었다. 그 서사 속에서는 단군이 창업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어떠한 시험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주몽신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역시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이며, 강의 신 하백의 딸 유화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몽은 창업주의 자격을 생래적으로 획득한다. 그가 고구려를 세우기까지 겪게 되는 위협은 그의 혈통과 능력을 두려워한 금와왕과 대소 왕자의 두려움에 의한 것이며, 주몽의 모험은 오직 자신에게 닥친 생명의 위협을 피하는 것에 있을 뿐이다. 그 서사에서 고구려 백성의 보호자로서 그가 지닌 창업주의 자격을 묻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신라의 <혁거세신화>에서도 가야의 <구지가>에 배경 설화로 제시된 김수로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전형적 건국 설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고귀하고 신성한 계보 자체가 자격이며, 그러한 계보가 창업주의 능력을 보장한다. 것처럼 신성한 계보와 능력을 지닌 창업주들에게는 별도로 자격을 물을 필요도 없다. 그저 그 위대함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무조건 적으로 따르면 된다. 그와 같은 창업 주체들의 생각이 창업주의 자격을 묻지 않는 보호자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건국 설화의 전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탑스 전설에서는 오직 한 가지 크리스탑스가 지닌 창업주의 자격만을 문제 삼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제시를 통해 창업주가 가져야 할 보호자로서의 이미지를 매우 분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서사를 통해 나타나는 바, 크리스탑스가 보여주는 굳건한 보호자의 모습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민중이 원하는 창업주의 형상일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서 그들의 도시를, 그들의 국가를 그 넓은 어

깨에 짙어진 채 시시각각 요동하는 세계사의 강물 속에서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이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그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지 않는 자이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까마득히 남은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이다. 단지 엄청난 능력을 지녀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를 원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성원과 집단을 위한 일념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민중이 원한 진정한 창업주, 진정한 보호자, 진정한 영웅의 형상이다.

역사를 통해 많은 집단과 민족, 국가의 창업이 이루어졌고, 그 창업주에 대한 숭한 신화들이 만들어져 왔다. 그러한 이야기는 창업주와 그 계보를 이은 지도자들이 신성한 계보와 강대한 능력으로써 세세무궁한 집단의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라 약속한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집단이 흥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위대한 창업주의 계보를 이었다던 많은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안위만을 위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단의 보호를 포기하곤 했다. 그와 같은 역사의 되풀이 속에서 민중은 깨닫게 된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견딜 수 없음에도 견뎌내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임을 말이다. 이에 크리스탑스의 형상을 통해 계보와 능력을 자랑하는 신성한 창업주들에게 묻는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위대한 신성으로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굳건한 보호자로서 죽을힘을 다해 버텨내 줄 수 있는가. 자신들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그 어깨 위에 자신들을 얹고 죽음과도 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가하고 말이다.

이는 스스로의 영달과 권세를 위해 보호자를 자처하는 오늘날의 많은 지도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 있다. 그들이 꿈꾸며 얻고자 하는 지도자의 자리는 찬란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며, 본디 끝없는 고통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할 보호자로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보호자로서의 창업주 형상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거대한 집단에 한해서만 의의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가 내면에서 들여다 본 현실적 인간의 삶을 함의한다는 것을 고려하면(부르노 베텔하임 1998 40), 이 전설에서 보여주는 창업주의 자격이란 거창한 건국 영웅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현실의 우리에게

도 간히 전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실상 현실 속 인간 삶을 구성하는 모든 집단 속의 창업주에게 그러한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요구된다. 가장 기본적인 집단을 예로 들면, 한 개인이 배우자를 만나 이루게 되는 가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각의 당사자에게 보호자로서의 창업주 자격이 요구된다. 현실의 인간 삶 속에서 가정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기는 언제나 삶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다. 경제적 곤궁, 가족의 투병, 구성원 간의 오해와 불화 등, 뜻하지 않은 순간 직면하게 되는 위기 하나하나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가정을 이룬 창업주들의 어깨를 짓누르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여 곧바로 가정의 보호를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존재기반을 지켜내기 위하여, 곧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하여, 가정의 창업주들 각자가 스스로 결코 꺾이지 않는 가정의 버팀목이 되고자 할 때 그 결속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 큰 화합과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⁷⁾

이처럼 크리스탑스 전설의 서사가 함의하는 창업주의 자격, 그것을 보여주는 보호자로서의 형상은, 크게는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작게는 가정과 아이들의 놀이 집단에 이르기까지 그 집단을 형성하고 견인하는 자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자세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특정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그들 집단의 리더에게 요구하는 자격인 동시에, 한 집단을 이루고 이끌어가는 창업주로서 스스로가 내면화해야 할 자세이다. 결국 현실 삶의 다양한 집단 속에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각각 집단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크리스탑스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굳건한 보호자의 형상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 전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7) 자연스러운 구비문학의 형성 과정이란, 민중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문제 삼게 된 것들이 이야기 속의 형상으로 응결되는 흐름을 따른다. 이를 고려하면 ‘보호자로서의 가정(家長)’이미지가 더 큰 집단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어 투영된 것이 크리스탑스의 형상이었으리라 본다.

4. 결론

지금까지 발트 3국의 중앙에 위치한 라트비아의 건국 설화, 리가의 창업주인 크리스탑스에 관한 전설을 대상으로 그 서사와 상징이 함의하는 창업주의 자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크리스탑스가 지닌 거인의 존재성은 창업주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상징하고, 그가 리가의 창건 자금을 얻는 과정에 직면했던 강 건너 기의 시험 내용은 창업주로서 감당해야 할 시련과 함양해야 할 자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크리스탑스가 시험을 통해 증명한 창업주의 자격이란 다름 아닌 굳건한 보호자로서의 자세이며, 것처럼 집단 구성원을 지켜내기 위해 견딜 수 없는 짐을 어깨에 지고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민중이 원하는 창업주의 자격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크리스탑스 전설이 그려내는 창업주의 형상은 창업주와 지도자의 자격을 얻고자 민중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현실의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된다. 또한 크게는 민족이나 국가에서부터 작게는 가정이나 또래 집단에 이르기까지 현실의 다양한 사회 집단 속에서 창업주이자 구성원으로서, 보호자이자 피보호자로서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한 집단의 주체로 바로서기 위해 내면화해야 할 자세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신성한 계보나 능력을 통해 창업주의 위업을 정당화하는 일반적인 건국 서사시와 달리 비교적 분석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건국 설화를 대상으로 창업주의 자격에 대한 민중의 원형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건국 설화의 유형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이야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 유형을 찾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새로운 의미를 궁구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다고 하겠다.

주제어

라트비아, 리가, 크리스탑스, 거인, 창업주, 보호자

참고문헌

- 강동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2.
-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 서진석, 「쿠를란드 공국의 라트비아 문화사적 가치 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39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5, 101-131.
- 이민희, 「리투아니아 전통종교 로무바(Romuva)와 요레(Jorė) 축제 연구」, 『비교민속학』 48, 비교민속학회, 2012, 173-199.
- 이상금 외, 『독일발트문학과 에스토니아문학』, 산지니, 2011.
- 이상금,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언어와 문화, 문학에 관한 연구」, 『독일어문학』 제65집, 한국독일어문학회, 2014, 239-269.
- 정경택, 「라트비아의 언어정책과 민족 간 갈등 연구」, 『슬라브어 연구』 제17권 2호, 한국슬라브어학회, 2012, 237-256.
- 정동훈,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민족 건설과 소수인종 보호: 유권자들의 투표행동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0권 1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7, 125-161.
- 정병권 외, 『한국-동유럽 구비문학 비교 연구』, 월인, 2003.
- 조현실, 「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 - 설문대할망 전승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41,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9, 140-173.
-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Cahier Sauvage Series No.3: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 물신 숭배의 허구와 대안』, 동아시아, 2003.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 『이지지와 상징』, 까치, 1998.
- 브루노 베텔하임, 김옥순 외 역, 『옛 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1998.
- 블라디미르 프롭, 안상훈 역, 『민담의 형태론』, 박문사, 2009.
-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10.
- 칼 구스타프 융,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영웅과 어머니 원형』, 숲, 2006.
- Eva Eglāja Kristšone, *The Book of Riga: A City in Short Fiction*, Manchester UK: Comma Press, 2018.
- Wander Stories ED., Riga Travel Stories, WanderStories TM, 2014.

국문초록

라트비아 리가의 창업주 크리스탑스의 전설에 나타난 보호자의 형상 연구

조 홍 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라트비아의 설화 크리스탑스 전설을 대상으로 그 서사적 함의를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전설의 주인공 크리스탑스는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를 세운 영웅으로서, 그의 도시 창건에 얽힌 내막을 담은 이 이야기는 곧 라트비아의 건국 설화로서도 의미를 지닌다. 이 이야기가 가치로운 점은 일반적인 건국 영웅의 서사시에 비하여 창업주의 자격에 대한 민중의 원형적 인식이 비교적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서사에 제시된 창업주의 자격은 굳건한 보호자로서의 형상으로 응결된다. 거칠게 요동치는 강물로 표상되는 세계의 격랑을 거슬러 자신이 이루어낸 집단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직 자신에게 속한 구성원들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걸음을 굳건하게 내딛는 모습이다. 바로 그러한 보호자의 형상이야말로 민중이 원하는 창업주의 모습이며, 민중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오늘날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거울이다. 또한 현실의 다양한 집단 속에서 창업주이자 구성원으로서, 보호자이자 피보호자로서 역할하고 있는 우리가, 집단의 주체로서 바로서기 위한 자세와 지향을 제시하는 전범이 될 것이다.

Abstract

A Research on the Guardian's Image in the
Legend of Kristaps, Founder of Riga, Latvia

Cho, Hongyoun
(T.C İstanbul Üniversites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implications of Legend of Kristaps, Latvian tale, which has not been dealt with in Korea yet. Kristaps is the hero who founded Riga, the capital of Latvia, and his story of founding this city is also meaningful as a founding tale of Latvia. It is worth noting that the story's archetypal perception of the founder's qualifications is relatively clear and specific compared to general epic of the founding hero. The founder's qualifications presented in this narrative are condensed in the eidos of a unshakable guardian. It is the image of him who takes his own group on his shoulders and takes an unbearable step against the wildly tossing world with the intention of defending his own group. It is the image of the entrepreneur that the people want, and the mirror that will make them look back on themselves. It is also an example for us who act as a founder, member, protector and ward in various groups of reality to set the attitude and direction to stand as the subject of a group.

Key words

Latvia, Riga, Kristaps, Giant, Founder, Guardian

조홍윤

이stanbul대학교 강의교수 / 한국어문학

hongyoun.cho@istanbul.edu.tr

접수연월일: 2019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13일

계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